

한옥마을, 지속가능한 경쟁력 갖춘다

전주시가 각종 시설물 설치 시 문화재 등 인근 문화자산과 어울리는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한옥마을과 4대부성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를 강화한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급부상한 한옥마을을 정체성 확립과 인근 4대부성으로 관광과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옥마을과 4대부성 등 전통문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광고물 등 각종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한옥마을 및 4대부성 내 공공시설물 현황조사를 거쳐 다양한 문화자산의 형태와 재료, 색채에서 디자인요소를 발굴해 적용하는 도시디자인 지침을 수립했다.

우선, 형태디자인 적용지침으로는 전통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공목적으로

전주시, 한옥마을·4대부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로 가지고 있는 수직적이고 안정감 있는 형태에서 이미지를 도출했으며, 재료는 문화자산에서 주로 쓰이는 석재와 목재, 금속재로 분류해 각 분류별로 재질과 질감을 설정했다. 또, 색채의 경우에는 자연은 고채도, 인공물은 저채도를 원칙으로, 공공시설물에 사용되는 주조와 보조, 강조의 관계정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계획을 만들었다.

또한 시는 야간경관계획의 경우 자연경관 및 문화자산을 강조하는 간접집중 조명방식을 택해, 조명시설물의 직접적 노출을 최소화하고 생태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명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시는 한옥마을 및 4대부성 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한옥마을 시설물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배치와 규모, 형태, 재료, 색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도출했다.

이를 통해 한옥마을 내 시설물은 시설 간 중첩된 배치로 조망이 단절되고, 과도한 규모의 부속시설로 시설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 대비가 심한 재료를 사용해 시설 간 이질감이 느껴지고, 무분별한 원색 또는 돌출색채 사용으로 기존 시설물과 부조화를 이루는 문제점으로 손꼽혔다.

시는 한옥마을 관련 사업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통문화과(문화재지역)와 한옥마을사업소, 푸른도시조성과(공원조성), 도시재생과(특화거리), 도로하천과(도로정반), 시민교통과(버스승강장), 구청 생태도시과(수목유지관

리)와 건설과(도로·보행로 가로등) 등 8개 부서로 나눠 현안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팀을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한옥마을과 동문문화거리, 주변특화거리 등 전통과 근대, 현대가 공존하는 경관구조로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4대부성 주변에 대한 경관디자인 통합관리 방안도 마련해왔다.

시는 한옥마을 및 4대부성 공공시설물 현황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26일 관련 실무부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련부서별 협업을 통해 한옥마을 및 4대부성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 디자인요소를 적용하는 등 경관디자인의 통합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는 26일 시청 부시정실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사장인 조봉업 부시장과 관내 식품기업인 ㈜천년미소전통식품 이태규 대표, 유강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부산물과 짜장소스를 활용해 만든 '짜장순대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양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통식품 대중화 '앞장'

천년미소전통식품과 특허권 양도 이전 업무협약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돼지부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순대 제조기술을 지역기업에 이전, 전통식품의 대중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는 26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사장인 조봉업 부시장과 관내

식품기업인 ㈜천년미소전통식품 이태규 대표, 유강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부산물과 짜장소스를 활용해 만든 '짜장순대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 양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구원이 지난 2013년 수행한 '돼지부산물 및 돈황 활용을

식개발사업'의 성과 중 하나인 전통순대의 특화된 조리기술과 차별화된 레시피를 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전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천년미소전통식품은 앞으로 우리의 전통음식인 피순대에 짜장소스 기술을 접목한 짜장순대의 제조와 유통, 홍보 및 판매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김제서 모텔 화재로 모텔 주인 병원 치료

김제 모텔에서 불이 난 연기를 흡입한 모텔 주인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6일 오전 1시 5분경 김제의 한 모텔 2층 빈 객실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투숙객을 깨우기 위해 객실을 돌아다니던 모텔 주인 박모(57)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담배 피우던 10대 발길질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래 부장판사는 26일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감의 수강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2시5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상에서 김모(14)군의 뺨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밟고 턱을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김군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중 김군이 욕을 하며 도망가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완산구, 생선회 취급업소 위생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용호)는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생선회 취급업소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콜레라 발생 및 전파 예방을 위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수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상태, 무신고 제품 사용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개인 위생관

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족관 물과 어패류 등을 수거해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간이세균오염분석기를 활용해 조리종사자 및 칼, 도마 등 조리기구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 영업자들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인위생과 수산물 취급 등 조리 위생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김영재 기자

전주 관내 금속가공 소상공인 공동장비 구축

공모사업 선정 국비 5억 확보

전주지역 소규모 금속가공 업체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동장비가 구축된다.

전주시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위원장 양규인)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2016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소공인을 위한 공동장비 무료이용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시가 소공인들을 위한 공동장비

무료이용시설을 구축하게 된 것은 '지역 기업 기(氣) 살리기'의 일환으로 값비싼 장비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다.

시는 금속가공 소공인들을 위한 공동장비구축을 위해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상품화진원동을 재경비해 약 50여평(약 170㎡)의 공간을 제공하고,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국비를 지원받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김영재 기자

호남소리의 재발견

'신들소리' 무대 오른다

내달 2일 국립국악원서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사전공연 '신들소리'가 오는 10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주에서 진행되는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의 개막에 앞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전공연 중 지난 8월 열린 '영교(迎鼓)'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번 '신들소리' 공연은 축제 개최지인 전주와 호남지역 일대에 전래되어 오는 지역 소리의 재발견에 집중했다. 공연은 슬기둥의 연주와 김용우의 '만물산야'를 시작으로 '신호남가', '신소리', '순창곰돌소리', '어? 사또!! 춘향전', '익산지계목발노래', '기타산조합주'의 순으로 110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순창곰돌소리'는 제4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차지했고, '만물산야'는 제1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익산 삼기능요의 한 폭자로 소개된 바 있다.

또, '호남가'의 경우는 일제시대 유성기 음반 취입 당시, 재생시간의 문제로 '호남가'의 일부가 임의로 삭제된 것을, 가야금 병창 강정렬에 의해 손실된 부분이 복원됐다.

호남에 뿌리를 둔 이 곡들은 이준호(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중심으로 현대의 감성에 맞게 재구성·편곡돼 슬기둥, 소리꾼 김용우, 색소포니스트 김병렬, 소리꾼 오혜연, 기타리스트 김도균에 의해 재창조된다.

한편 '신들소리' 공연은 전석무료로 진행되며, 28일 까지 홈페이지(<http://www.kfaf.or.kr>)와 전화(063-280-1652~3)를 통해 예약접수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